



심수철 선생 (본명: 심일리아)

심수철 선생은 1921년 6월 11일에 원동변강 우부리시 (당시 한인들은 노왕령이라고 불렀음) 빈농의 가정에서 심용철 씨의 맏아들 아들로 태어났다. 심용철 씨의 가정에는 아들 형제 딸 형제, 4분이 자라났다. 심수철 선생의 부친은 6형제였으나 제 1, 2, 3분들은 고함땅 경기도 횡성에서 돌아가시고 아태군-4, 5, 6형제가 소련땅 원정에 월병하여 들어와 살다가 6대 삼촌은 1929년에 중국에 월병하여 가셨고, 심수철 선생의 부친은 5대 분으로 강세이주 이후 따슈킨은 부근에서 계시다가 1951년에 사망하였다. 심수철 선생의 모친은 1928년에 일찍이 사망하여 수철 선생은 맏형님의 교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다. 심수철 선생은 1929년에 초학교에 입학하여, 초학교를 마친 후 1936년에 초중을 졸업하였으며 동년에 한인 사범 전문 학교에 입학하여, 한인 강세이주 때에 학교와 함께 이주하여 가라흐 공화국 가살린스크에 들어와 1939년에 사전을 마감하고 그 해에 크슬로르다시에 있는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사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1940년에 헝가리에 있는 교원 대학에 전학하여 1941년에 동교대를 졸업하였다. 교대를 나온 뒤 1년간 남부 가사한 부근이던 훈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1942년에 우즈베크스탄에 이주하여 가서

2.

다뉴켄은 주 중립적 지역 불로조브 추종에서 교원일을 하시면서 이 시기에 다뉴켄은 당시의 명칭 사대에 입학 하여 동시대 동선학부를 1945년에 필화고 가흔해 가을부터는 다뉴켄은 주 안기울시 교육부에서 시험으로 일하시었다. 1945년에 조선어 일제에서 해방된후 부모들의 고향 땅에 나가서 조국건설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으로 품고 1946년에 무르베크 교육성의 명의로 조직한 특별감습소에 입소하여 1947년에 감습을 필화고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에 교원으로 파견받아 가게 되었다.

1947년에 평양에 도착한 심수철 선생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교육성의 파견에 따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좌교원으로 1950년에 동족 상잔이 시작될때까지 일하시었다. 동족 상잔이 시작되자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총참모부 군사교육국 부국장으로서 1951년까지 제사다가 1951년부터 1962년까지 조선인민군 간부국 부국장으로서 군사정책을 대좌로 세웠다. 인민군대내 간부들에게 향하여 특히 1956년부터 고위 계급에 진행된 사상 검습사업은 심수철 선생은 내내 능숙하고 절치게 되었다. 심수철 선생은 분시 말시 점관치 않고, 남부일 에 필요없이 배치치지 않고 성의로써 어떤 중좌중좌나 누구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할일이 없어 사업 만 꾸물하게 하여온 진실한 인민군대 역군이였다. 그러나 어떻게 진실한 간부로 소련 중좌, 소련가공주의자, 소련식관 공주의자, 소련만 위대하게 일중하는 사대주의나 하든 감속을 세워 간부국 부국장 직위에서 총직식하 육군대학 로어 강좌장으로 강직식하 내내 보내였다. 인민군대내 사상 검습 사업이 본격적으로 강중앙 차원화 부차원화 김일성

이 독판치고 난판치는 화염에서 진행되자 조선언론은 육  
군대학은 강직당하고 철직당한 언론군 간부들이 내뿜어  
잠간 불었다가 영영 하직길을 떠나가는 정황이었다. 언론군대  
내 많은 간부들을 강직하고 철직하여 직접 하바닥-농촌 협동조  
합, 한광, 광산, 백두산 벌목장에 광영부를 베키고 막로동복을  
입혀 내뿜 버내기전 반듯이 (반듯이) 한달만한 기간은 육군  
대학에 재고양 분과라고 조직하고 그에서 단김을 베어내고 자기  
갈 길을 가게하였다. 많은 간부들은 여기에서 떠나 감옥이나, 정  
치범 특별우용소에 갔다가 다시는 가족도 친척도 보지못하고 죽었다.  
심수철 선생은 다른 간부들과 꼭 붙어한가지로 육군대학에 나  
려온지 몇달이 못되어서 또 아래로 더 내려가 협동조합에서  
승로동자로서 부산의 숙련을 맡으라고 권고하면서 철직시켰다.  
어때에 심수철 선생은 벌써 육군대학에 내뿜어 버린 부하  
생각하고 이런 결심대로 노원 대<sup>사</sup>란에 가서 귀국 신청서와 함  
께 노원 공민 회복 청원서를 노원 최고 노예는 상임위원장 앞에  
제출하였다. 심수철 선생의 노원 공민권 회복에 대한 청원은 9  
주일 여후 허락되어 노원에 다시 귀국하여 노원군바를  
결국 당중앙위원회이 파견으로 우르백한 다쉬켄츠로  
1962년 12월에 도착하였다. 다쉬켄츠에 도착한  
심수철 선생의 가족은 시험의 결정에 따라 무리로 사택을  
배정받았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부속한다음 심수철 선생은 간부  
사택에 다년간 정숙하는 일군으로서 지방산업산하 시골공장  
간부부장으로 임명받았으며 심수철 부인 박안나씨는 시골공  
장 기능 재봉공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심수철 선생은 그후 1970년에 시 니사의 명칭 사범  
대학 조선어학부 상급교원으로 초래되어 그 직속에서  
1982년 까지 일하시고 그후 은급생활에 넘어가 휴식  
하기 시작하였으나 시 흉은 각군 지도기관들의 초청으로

위신 있는 직외강사로 계속 일하시였다. 심수철 선생은 사대  
 교수로 일하시면서 자기의 권치리론적 수준을 더 높일 줄을 높이 기  
 위하여 1972년에 다뉴켄은 당중앙고급학교 <sup>12</sup>모스크바-네인주의 야간  
 학부에 입학하여 2년 반 공부하고 1974년에 졸업하시였다.  
 선생은 직외강사로 <sup>12</sup>뿐만 아니라 곳곳마다에서 조직한 한글  
 공부 강습소 등에서 한인들에게 열심히 한국어로 배워 주면서  
 한인들에 대한 예절, 풍습, 전통에 대하여서도 강의하는  
 한편 또 조선의 력사강의도 중요하시였다.

심수철 선생은 한인들의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운동에도 열  
 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 1990년 소련에 살고있는 한인문화  
 중심조직에 관심을 두시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소련한인문화  
 중앙조직에 대한 창립대회에 참가하시였으며, 1991년  
 에 모스크바에서 조직 <sup>된</sup> 소련국제 전북한 혁명리 유가족후  
 원회 조직 창립 대표자 회의, 또 1992년 정월에 진행된 조  
 국 평화통일 구국전선 <sup>12</sup>창립회의에서적절한 창의적 의견들도  
 표시하시면서 실무적인 문제해결에 열중하시였다.

이상에 열지한 한인들의 공개 단체가 조직된후 심수철  
 선생은 활을 걸고 사업하시였다. 새로 조직된 유가족후원  
 회 및 민족통일구국전선 우르백한 지구 조직부장으로 계시  
 면서 북한에서 살수없이 경제적으로 버지없는 동년에서 아이  
 들을 데리고 당시 소련에 피도착한 유가족들은 당시 아무런  
 조직도 없이 절 무르백한 전역에 산재하여 살고 있었다.  
 이 가족들을 적발하고 총계를 잡는 문제는 험악하였다.  
 심수철 선생은 곳곳에 편지를 써 보내고 전보를 쳐서 문외하는  
 한편 많은 지방들에는 직접 찾아가다니며 하나 하나씩 직접  
 방문하고, 총계를 잡게 되며 유가족 후원회 사업의 체계로 설  
 립하였으므로 많은 유가족들은 대대에서 헤매고 있는 동포

사키 모양으로 고독 적막하게 살다가 유가족 후원회가 성립  
되어 자기 뜻을 찾고 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향에서 온 설음  
이 한가슴에 북받쳐 들은 눈물로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심수철 선생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그 시각 전까지는 누  
구도 여려 보지 않던 사람들을 많이 찾아 유가족 후원회 무주  
백지구 1명 단에는 54세대, 62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금일 현재에는 유가족 세대수는 35세대에, 31명의 성인  
할머니들과 41명의 불구자 권은 어머니 명단에 가입되어 있다.  
심수철 선생은 유가족 후원회와 구국전선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젊은 세대들에게 조선어를 배워주기 위하여 한글을 연구하는 반을  
조직하고 1주 2번씩 출근하여 배워주곤 하였다.

심수철 선생은 1990년 6월에 한국 시 130 문화방송의  
초청으로 당시 "노년공화노인단"이란 명의로 처음 한국을 방  
문하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심수철 선생은 한국어를 잘하는 분으로  
어디로 가든지 라디오나 신문기자들에게 취재를 받으면서  
취재자가 되어 우치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가지 서울신  
문들에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들이 실리게 되어 독자들을 하여금  
노년에 대하여 각방편으로 글이 알게 되었다. 심수철 선생은  
북한공산권 흥취회에서 15년간이나 살아 왔으나 불편한 자음  
1권구를 호대호한 정취제로 자분권의 세로가 얼마나 생기발  
발라야 권취정제 발전에 전망성이 있으며, 그러한 길로 간  
남한은 단기간에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과들로 달성하  
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번영과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직회랑사어이며 교원인  
심수철에게 아주 훌륭한 사실적 재료를 주며 선생의  
실지 활동에 더 많은 행동의 감동으로 되었다. 한국  
방문 이후 심수철 선생은 사기가 살고있는 유로백한의 전취  
경리 정취정향 한국에 널리 알리기를 한국자본의 대외전술

세 방조를 취야 되겠다고 결심하곤 우르베크한 제 경제법정과 새공민 공화국의 새 정책에 대한 제 광영등은 월국 달로 번역하여 출판하르도록 노력하였다.

그가 직접 번역한 책들은 "우르베크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후자에 대한 절차와 그의 실제적 실행 절차; 우르베크한 대외 대내 정책에 대한 문제를 브라우다, 끄쓰볼쓰카야 브라우다, 이스베 쓰지야 기자들과 및 외국 기자단과의 이블라르 가리모브 대통령의 회담; "새 집을 짓기 전에는 낡은 집을 허물리지 말라"; 우르베크한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력사, 등 소책자들은 서울에서 대량 출판되어 전파 되고 있다.

심우철 선생은 조국통일 구국전선이 조직된 첫날부터 그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현재까지 계속사업하고 계신다 1994년 10월에 서울에서 열리었던 구국전선 제 2차 대회의 대표자로 참가하게 되어 서울로 출발시 하슈켄호 공항에서 불리에 고열압병이 발작되어 출발을 중단하고 집에서 약 3개월간 치른후 다시 건전한 몸으로 러시아 공화국 로스도브시에 머물어 살고 있으므로 휴양하러 가서 이때까지 계속 그곳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심우철 선생은 근일에 또 별로 취지 않고 많은 신문지료들을 각종신물들에 계속 후고 하고 있어서 한인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심우철 선생은 로스도브에 살고있는 아들 하나와 하슈켄호에 살고 있는 딸 3명에게 가 없으며, 복인 백안나는 건강한 몸으로 심우철 선생의 건강에 대하여 크다란 관심을 돌리면서 하슈켄호에도 종종 출동하시곤 한다.

1997. 4. 20. 장영웅